

화장실 부족... 집으로 볼 일 보러가는 초등생

광주 광산구 초교, 늘어나는 학급에 화장실 수 못 따라가 학급당 학생수 기준 넘어서도 환경개선 증축공사 불가능

‘초등학생들이 부족한 화장실 때문에 길게 줄을 서거나 제때 볼일도 못보고 수업에 들어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지적한 광산구 일부 초등 학교 학생들 얘기다. 광주시교육청의 치밀하지 못한 학생 수용 계획 때문에 빚어졌다는 게 시의원 주장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초교의 경우 3년 전인 2013년 1423

명(43학급)이던 학생 수가 올 들어 1745명(52학급)으로 늘어났다. 학생이 늘면서 교실 증축도 뒤따랐지만 정작 화장실은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했다. 수원초교 화장실 면적은 708.47㎡, 48학급 규모의 화장실 기준 면적(728.88㎡)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학생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시교

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대로라면 비슷한 학교가 적지 않다.
만호초교는 36학급에서 42학급으로 6학급을 늘렸지만 화장실 면적(596.16㎡)은 교실 증축 규모를 따라가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각급 학교 시설 기준’에 따른 42학급 화장실 면적(728.88㎡)을 감안하면 무려 132.72㎡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만호초교는 48개 학급(1185명)에 이른다.
진남초교도 30학급이지만 화장실 면적(354.24㎡)은 24학급 기준 면적(485.92㎡)도 못 갖췄고 큰별초교(40학급)도 기준을

맞추려면 부족한 면적(89.91㎡)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야 할 처지다.
수원초교(34.3명), 큰별초(29.0명), 장덕초(28.5명)는 학급당 학생수가 광주시교육청 기준(26명)을 넘어섰음에도 증축 공사 등이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학생 불편 해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유정심 의원은 “화장실 부족 문제도 시교육청의 허술한 학생 수용 계획 때문에 빚어진 ‘콩나물’ 교실 문제와 비슷하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6 해질 17:36 달출몰 --- 달지름 13:35

포근한 낮기온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7/21	보성	맑음	2/20
목포	맑음	9/20	순천	맑음	7/20
여수	맑음	11/19	영광	맑음	4/21
나주	맑음	3/22	진도	맑음	5/21
완도	맑음	8/20	전주	맑음	5/20
구례	맑음	2/20	군산	맑음	7/19
강진	맑음	3/21	남원	맑음	3/19
해남	맑음	3/21	축산도	맑음	13/17
장성	맑음	3/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북동~동	0.5
남부	면바다	동~남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면바다(서)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보통	보통
운동	보통
산불	보통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7:43	01:01
		20:31	13:04
여수		02:56	08:50
		15:38	22:30

◇주간 날씨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	☀	☁	☁	☀	☀	☀
11/18	12/21	13/17	14/18	14/18	12/17	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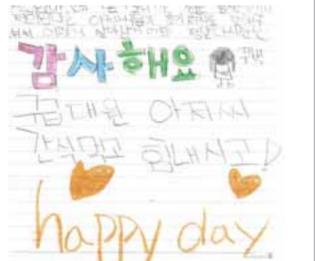
“119 아저씨 감사합니다” 두 꼬마의 손편지

심근경색 어머니 구조 고마움 연필로 ‘꼭꼭’

유정(여·12)·지후(7) 남매는 지난 2일 오후 7시 아빠 최성민(44)씨의 손을 꼭 잡고 광주동부소방서 지산119안전센터를 찾았다. 유정이의 한 손에는 엄마를 살려준 구급대원 아저씨들에게 선물할 편지가 들려있었고, 봉투 안에는 식당에서 모은 사탕 몇 개가 담겨 있었다.
이날은 두 남매의 엄마 최선영(38)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지 보름 만

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기도 했다. 연필로 꼭꼭 눌러쓰고, 정성스럽게 색을 입힌 편지에는 “저희 엄마 구해주셔서 감사해요!”라며 “구급대원 아저씨들 너무 멋져요. 사람의 단 하나뿐인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멋져요!”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는 “저희 엄마는 아저씨들이 초기 처치를 잘해주셔서 이렇게

살아난 것”이라며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해요. 구급대원 아저씨 간식 먹고 힘내시고, ‘happy day’”라고 글을 맺었다.
유정이의 엄마는 지난날 19일 오전 6시30분께 집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심장까지 멈춰지만 이날 출동한 정병준 구급대원 등의 응급조치로 인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병명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자칫 응급조치가 늦거나 잘못됐더라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정대원은 “저희가 한 작은 일이 한 가족의 행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에서 서울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장휘국 교육감 광주일고서 수업

제86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이 3일 윤장현 광주시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하고 일제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축사에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해 자신을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드높은 기상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간부들은 앞서, 이날 오전 광주제일고를 시작으로 전남여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교대 등을 돌며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별도의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렸다.
앞서 2일 장 교육감은 광주일고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수업을 진행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86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승호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 부회장 등이 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념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예술고 광양 유치...2018년 개교

전남도교육청이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가정 ‘국제 창의 예술고등학교’ 설립지가 광양으로 결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3일 동부권 예술고인 가정 ‘창의예술고’ 설립을 위한 지역선정 위원회를 열고 광양과 순천, 여수 등 3개 후보 지역 중 광양을 설립지로 최종 결정했다.
광양은 예술고 발전계획보고서 발표와 장기적인 예산 및 지원 체계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여수·순천을 제치고 최종 설립지로 선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시의 경우 300억 원 규모의 커뮤니티센터 제공 및 리모델링비 120억원 부담, 연간 운영비 10억원 지원등의 유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창의예술고의 경우 2018년 개교 예정으로, 학년별로 음악 2개, 미술 1개 학급 등 총 9개 학급(18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2월 독감 유행...예방 접종 서두르세요”

질병관리본부 권고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앞서 임신부, 소아, 노인 등 ‘독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이달 중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50~64세,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의료인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는 통상 11월말부터 감염현자가 늘어 12월과 이듬해

1월에 첫 번째 독감 유행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예방접종 후 형태 형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되도록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는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노인은 이달 15일까지는 병원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내년 초까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장애인 성공취업을 위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통합적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One stop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참여자대상 만 18~64세 이하의 구직 장애인
※ 단, 일반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조건부수급자는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정

지원내용

- 1단계 (3주~1개월)** ▶ 최대 25만원 지급
구직의욕 제고, 경로설정
■ 개별상담 ■ 집단상담 ■ 직업심리검사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2단계 (최대 8개월)** ▶ 월 최대 284,000원 지급
직업능력진진·일 경험
■ 내일배움카드훈련(300만원 한도) ■ 공단자체 직업훈련 등
- 3단계 (최대 3개월)** ▶ 취업성공시 최대 100만원 지급
집중 취업알선
■ 구인처 탐색 및 구인정보 제공 ■ 동행면접 등

※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최대 900만원)

신청문의 전화 : 062-448-1119~1120,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구, 한국토지공사 12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2015 인구주택총조사

호남지방통계청 2015 Census

대한민국의 내일에
국민의 말씀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입니다.
고용정책, 교육정책, 교통대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수립에 활용됩니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 지역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분석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등

주관 ▶ 통계청 실시 ▶ 지방자치단체 방문면접조사 ▶ 11.1~11.15